

새만금추진단, 기업유치·수질개선 ‘올인’

전북도, 임대료율 인하 등 투자여건 개선 투자설명회 본격화
2020년 2단계 수질개선 종합평가 대비 축산 오염원 관리 최선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새만금 투자유치와 새만금유역 수질대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분에 대해 이미 입주계약 체결한 기업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국내기업 임대료율을 1%로 인하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기업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바탕으로 타깃 분야를 재생에너지(태양광 기저재-ESS), 4차 산업(자율주행 자동차-드론),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등으로 설정하고, 새만금청, 지자체, 코트라, 입주기업 등과 협력해 투자설명회 및 새만금 현장초청 등 기업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시·아미 관광레저용지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완료하는 등 관광레저용지 민

간개발을 본격화해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새만금유역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0년 수질개선 종합평가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으로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함께 날로 증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농업비점 저감을 위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또 새만금유역(익산, 정읍, 김제, 부안) 휴폐업축사 철거사업과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추진으로 혐업축사로 전환을 방지해 가축 사육두수 증가요소를 제거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확대 시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은 올해 투자유치와 수질 개선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행 등으로 축산 오염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 단장은 “새만금 정책포럼과 워킹그룹 등 전문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주

요 현안 적기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는 등 올해 새만금에 기업유치와 수질대책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 사업 선정
‘그날을 기억하다’ 주제로 태극기·무궁화 마당 등 조성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선정된 사업은 ‘그날을 기억하다’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등 총 2억 25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3·5만세 운동을 주제로 담장과 옹벽에 타일벽화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담쟁이와 태극기를 활용한 생태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만세운동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를 테마로 한 태극기·무궁화 마당 등도 조성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그간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으로 건립한 3·1운동 기념관과 조형물(기념탑 등), 3·5만



세 운동길 등과 연계해 ‘항일항쟁의 역사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조감도> 윤병철 군산시 건축경관과 계장은 “구암역사 공원에 항일항쟁사 시설을 확충, 한강 이남 최초 만세운동인 3·5만세 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고창군, 청정먹거리 생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고창군은 청정 이미지 구축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뒤 올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과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 분석 서비스 제공한다. 또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맞춰 미등록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 군납,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4억원(국비 5억원, 도비 9억원)을 투입해 건물 리모델링과 잔류농약 320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하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잔류분석을 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생활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 맞는 청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며 “지역농가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순창군, 올 33개 스포츠대회 열려…상권 활성화 기대

순창군은 올해 33개 국제 및 전국대회가 지역에서 열려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열흘간 국제테니스연맹이 주최하는 ITF 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에 12개 나라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국 규모의 25개 대회도 총 120일간 펼쳐진다. 2월에는 제4회 전국유소년야구대회, 3월에는 1200여명이 출전하는 제60회 대한정구협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각각 열린다. 4월에는 대학과 실업 선수들이 태극마

크를 두고 제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른다. 10월에는 제3회 강천산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린다. 순창군 관계자는 “스포츠대회와 전지 훈련에 지역사회와 상권 협조가 요구된다”며 서비스를 높이고 친절하게 선수단을 맞이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j@



전북도, 산불진화·예방 ‘총력전’

대책본부 설치…18억 들여 진화헬기 도입·장비 확충 등

산불방지 대책에 총력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가 올해 산불방지 전용 임차헬기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전북도 산림당국에 따르면 총 18억원의 예

산을 들여 올해 산불진화 및 예방용 임차헬기 3대에 대한 기종 선정을 마무리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안전한 헬기투입을 위해 산불진화 헬기운영 전문기관인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와 14개 시군 산불담당 부서장 등을 선정 위원으로 구성해 마무리했다. 조달청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된 헬기 임차회사의 참가의향을 제출받아 규격(1500~2000 L) 적정성, 안전성 검사 등 조달청 등록기준 등을 심사 선정했다. 특히 헬기의 철저한 운항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영상기록 장치 부착을 요구하는 등 신속한 산불상황 판단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담수인양 능력 및 규격용량 적성성 등 헬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한 바 있다. 도 산림당국은 최근 이상기온과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전북도에서는 1월 31일까지 겨울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장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500평, 8500만원 투자, 투자가치 충분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함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